

“투명한 유통관행 정착시킨다”

한국출판인회의, 세미나 ... 출판유통협의회 결성 · 표준계약서 발표



·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출판유통개혁 정책 세미나'.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인호)는 지난 7~8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출판유통협의회 결성 기념 출판유통 개혁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모인 출판사·유통회사·서점 대표 150여명과 함께 ▲출판유통협의회 공동대표자 선출 및 운영세부안 ▲표준계약서(시안) 발표 ▲도서정가제 시수 결의문 채택 등을 논의했다.

출판유통협의회 대표는 김인호 회장, 한국출판유통(주) 허창성 대표, 한국서점조합연합

회 이창연 회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하고 표준계약서 시안은 범출판인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2개월 후쯤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도서정가제 유지를 천명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가동키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은 한국출판인회의 유통발전위원회(위원장 이승용)가 지난 연말부터 전국의 출판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범출판계의 중지를 모으기 위

해 마련된 것이다. 즉,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유통대란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소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명한 유통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였다.

논의의 초점은 거래표준화. 출판사·유통회사·서점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표준거래 약관을 마련하는 데 모아졌다. 이승용 위원장은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범출판계가 동의하는 약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더이상 늦추면 출판계는 악습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지역 유통회사 대표는 “거래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가안으로 제시된 약관 내용이 출판사 위주로 되어 있어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판협동조합 최선호 이사장은 “이런 논의를 갖는 자체가 출판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석자 대부분도 이에 동의하고 있어 조만간 범출판계가 공유할 거래표준약관을 작성·발표·시행할 전망이다. —오완진기자

협업, 청소년 권장도서 발표

교보문고·종로서적 등 서울·경기지역 대형서점 26곳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가 선정한 《섬진강 이야기》 등 상반기 우수도서 80종을 이달 말까지 전시·판매한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4분기 '이달의 청소년 도서목록' 20종 22책을 발표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 《화첩기행》(김병중, 효형출판), 《길》(말콤 보세, 끌리오), 《나의 선택, 나의 길》(임권택 외, 산하), 《나무호미》(유경환, 세손), 《보름간의 문학여행(한국편)》(강혜원, 동녘), 《초승달과 밤배(상·하)》(정채봉, 까치글방), 《뉴욕스케치》(장 자크 상페, 열린책들), 《금오신화》(이재호 옮김, 숲) ▲종교·철학 《영웅의 역사》(박상의 옮김, 소나무), 《공자사상과 현대사회》(김태길, 철학과현실사), 《장자》(오강남 옮김, 현암사) ▲인문·사회는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동아일보 특별취재팀, 21세기 북스 새날), 《나도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홍신자, 안그라픽스), 《굿모닝 밀레니엄》(최갑수 외, 민음사), 《연애자의 나라》(이상훈, 명진출판) ▲과학·기술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1·2》(에릭 뉴트, 끌리오), 《생물학의 시대》(홍옥희, 범양사), 《로봇의 행진》(한국과학기술원 옮김, 한승) ▲역사 《정암 조광조》(이종호, 일지사),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이영화, 가람기획) 등.

'99 서울국제도서전 6월 1일부터 열려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총1500여사 참가



지난해 서울 국제도서전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문화방송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99 서울국제도서전이 6월 1일부터 6일간 한국종합전시장 대평양관(1층)에서 열린다. 참가업체는 국내 107사(297부스), 외국 16개국 74사(77부스) 등이며, 과학기술출판협회 등 단체관 개별 참가사까지 포함하면 총 1,500여사가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2사, 48부스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예년에 비해 아동출판물 발행업체의 참가 수가 줄고 단행본 출판사의 참가가 부쩍 늘어난다. 또한 소규모 부스에 참여하는 출판사가 늘어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특별기획전을 함께 펼쳐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책으로 여는 새로운

천년'전은 책을 통해 우리 민족이 지나온 천년 세월의 족적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천년을 밝힐 등불도서 책임을 인식시키는 장으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우리 책, 해외 출판 도서전', '우리사 대표 출판물 테마도서 특별전', '책 읽는 모습, 엮서 그림 원화전', '만화특별전' 등도 펼친다. 부대행사로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 현장방송과 국제출판 전문가회의 등이 열린다. ◆

출판진흥법 제정 및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기준 발표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는 21세기 새로운 출판문화에 맞는 출판진흥법(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전문대 출판학과 전영표 교수 등에 용역을 주고, 각 출판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발행하는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출판물이 발행된 여부를 가리지 않고 도서나 정기간행물로 간주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CD롬 등 고정(固形)매체만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색인·검색·선택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발행사는 ISBN 등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해 납본해야 한다.

국가전자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작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 등 국내 7개 주요 도서관을 연계

한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이 지난 5월 1일부터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 도서관이 관리하는 479만건의 서지목록 및 학술정보를 윈스팀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대우학술총서팀, '아르케'로 새출발

〈대우학술총서〉를 발간해온 대우재단 학술사업팀이 별도 법인의 출판사 '아르케' (대표 이형진)로 새출발한다. 아르케는 그동안 발간해온 대우학술총서를 완결하고, 나아가 새로 시작한 고전총서 등의 발간을 맡는다. 한편, 아르케는 연구지원과 출판과정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면서, 편집의 전문화와 마케팅의 차별화를 추진해 양질의 학술서를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